

청소년 음주행위 영향요인*

안정선** · 김희경** · 최은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은 69.8%로 1998년 68.4%보다 증가하였고 20대의 음주율도 1998년 82.98%에서 2001년 86.0%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음주율도 1998년 77.2%에서 80.7%로 높아졌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3).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음주율이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 청소년의 음주율도 남성 청소년의 음주율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시 태아 알코올 증후군과 같은 후유증도 증가할 위험에 있다고 보고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또한 전체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율은 71.8%, 지난 1년 동안의 음주 경험율도 51.2%, 연도별 음주 경험율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대학생과 근로 청소년들의 음주빈도가 다른 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40-50%의 청소년이 중학교 시절부터 음주를 경험하여 습관화된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술은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쳐 사람을 흥분시키고 거친 행동을 하게 하거나 불안, 공포, 공황 등 건강 상의 피해를 유발하며 중독성이 있어 마약처럼 끊기 어렵고 가족들과의 갈등, 성폭력, 폭행 등 각종 비행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며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우

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항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를 통한 형식적인 교육과 청소년 음주예방·치료 프로그램이 일부 사회기관에서 치료상담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을 위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술이 미칠 수 있는 폐해를 알리며 음주 대안문화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형성과 보급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성격, 우울, 부모, 친구의 영향과 같은 음주 관련 요인과 자기효능, 음주 결과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음주 강도와 음주 문제의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하고 이상의 관련 요인들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ey & Correia, 1997; Cho, 2000; Choi, 1997; Shin, 1998; Wall, & McKee, 1998; Lee, 1997). 성격은 음주정도와 음주문제인 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3

* 이 논문은 2001년도 공주대학교 자제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간호학과

***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전문응급구조학 전공

요인 성격구조 모형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음주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위해회피 성향은 음주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보상의존의 성향은 음주행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계속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격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선택되었다(Shin, 1998). 알코올 남용과 감각 추구 성향 및 불안, 우울, 자아개념이 낮은 상태가 대학생의 과음과 문제성 음주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rown & Munsion, 1987) 청소년기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요인은 음주행위, 음주태도, 부모-자녀관계로 음주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청소년이 음주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녀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Hawkin, et. al., 1992). 또한 친구의 영향 역시 청소년 음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와의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친구의 음주규범, 음주행위, 음주태도, 친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hr, Marcos & Morgen, 1995). 그리고 자기효능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자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86) 자신의 행위에 대한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음주는 친구의 압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상태에서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은 음주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Aas, Klepp, Laberg & Aaro, 1994).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는 행동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신념으로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가 음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대는 음주의 동기로 작용하고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이 음주할 때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음주행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Oei & Baldwin, 1994).

이상의 변인들은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나 이전의 연구에서는 산발적으로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 우울, 부모와 친구의 영향인 음주관련 요인과 자기효능 및 음주 결과 기대인 인지적 요인을 이용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고 규명하여, 청소년 음주예방 및 금주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관련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규명하여 청소년 음주 예방 및 금주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음주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 음주행위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 3) 청소년의 음주 행위와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4) 청소년의 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음주 행위

음주 강도와 음주 문제의 점수에 가중치를 주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1) 음주 강도

음주량과 빈도를 말하며 음주시의 음주량과 빈도 및 마신 술에 포함된 에탄올의 양을 곱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음주 문제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해 생기는 장, 단기 문제들로서 Shin(1998)이 개발한 음주문제 측정도구를 Cho(2000)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유혹을 거절하는 자신의 통제능력을 Aas 등(1995)이 개발한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Goldman, Brown과 Christiansen(1987)이 개발한 청년용 음주결과 기대검사(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Adolescent form) 척도 (Christiansen, Smith, Roehling, & Goldman, 1989)를 Cho(2000)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긍정적 기대정도 점수를 말한다.

4) 성격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내적인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1991)가 제안한 3차원의 성격검사(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기초로 Shin(1998), Cho(2000)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새로운 경험추구, 위해 회피, 보상 의존성 등 성격차원을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1) 새로운 경험 추구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에 대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기분이 들뜨고, 단조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새로움에 대한 빈번한 탐색적 활동을 즐기는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탐색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흥분을 잘하고, 성미가 급하며, 사치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2) 위해 회피

처벌이나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는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으며, 두려움과 수줍음을 느끼며 억제되어 있고, 쉽게 피로해지며, 근심이 많은 사람들로 특징 지워진다.

(3) 보상 의존

사회적 승인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이전에 승인되었던 행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지닌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고, 인정이 있으며, 감상적이고 이들은 또한 칭찬과 사회적 단서들에 매우 민감한 사람으로 특징 지워진다.

5) 가족 응집력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로, 가족 구성원의 과잉 분리된 상태에서 연결된 상태로 갈수록 심리적 유대가 높아져 가족 응집력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Circumplex Model을 근거로 개발한 FACES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중 가족 응집력을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6) 우울

정서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근심, 걱정,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로(Kim,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Zung의 우울척도(Shin, 1997)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7) 부모 영향

음주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인지한 아버지의 음주빈도, 어머니의 음주빈도를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8) 친구 영향

음주에 대한 친구로부터의 영향력으로, 대상자가 인지한 친구의 음주빈도를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가 충남 K시에 다니는 대학생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음주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충남 K시에 다니는 대학생 중 음주자 306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음주행위, 거절의 자기효능, 음주 결과기대, 성격, 가족 응집력, 우울 도구이다.

1) 음주 행위

(1) 음주 강도: 음주시의 음주빈도, 음주량, 마시는 술의 에탄올 량을 곱한 점수로 측정하였다.

(2) 음주 문제: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생기는 장, 단기 문제로 Shin(1998)이 개발한 음주문제 측정도구인 20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Cho(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 거절의 자기 효능

거절의 자기 효능은 음주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으로, Aas 등(1995)이 개발한 자기 효능 척도인 7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 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3) 음주 결과 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Goldman, Brown과 Christiansen (1987)이 개발한 청년용 음주결과 기대검사(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Adolescent form) 척도를 Cho(2000)가 수정 보완한 도구인 16문항으로 이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Cho(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4) 성격 특성

대학생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 (1991)가 제안한 3차원의 성격검사를 기초로 Shin(1998)이 수정한 도구인 4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이분 척도로써 새로운 경험추구, 위해 회피, 보상 의존성 등 성격차원으로 각각의 차원은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또한 종합적으로도 인격의 장애 정도를 나타낸다. Cho(2000)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 Cronbach's $\alpha = .76$, 위해 회피 Cronbach's $\alpha = .79$, 보상 의존성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 Cronbach's $\alpha = .65$, 위해 회피 Cronbach's $\alpha = .71$, 보상 의존성 Cronbach's $\alpha = .63$ 이었다.

5) 가족 응집력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로 Olson등(1985)이 Circumplex Model을 근거로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에서 가족 응집력인 정서적 결속감, 도움과 의논, 가족의 경제, 여가 시간 및 친구의 공유, 활동의 공유와 행사 참여인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6) 우울

Zung(1965)의 우울 측정 도구를 Shin(1977)이 번역한 도구인 20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자에게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록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와 대상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의 음주빈도는 가변수 처리하였으며 음주강도는 음주빈도와 음주량, 마시는 술의 에탄올 량을 곱한 점수를 표준화시킨 후 분석하였다. 음주강도와 음주문제를 하나의 음주행위로 설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하였으며 이때의 정준상관(canonical correlation)은 0.564였고 $p < .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음주강도와 독립변수 간의 canonical coefficient (0.0157)와 음주문제와 독립변수 간의 canonical

coefficient (1.2745)를 이용해 하나의 음주행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7.7%(146명), 여학생이 52.3%(160명)이었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37.9%(116명), 21-24세가 48%(147명), 25세 이상이

13.4%(41명) 보였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54세였다. 동아리 활동여부는 45.4%(139명)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는 44.8%(137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68.3%(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렵다가 18.6%(57명)로 나타났다. 한달 동안의 용돈 정도는 10-20만원 사이가 47.1%(144명), 10만원 미만이 32.4%(99명), 20-30만원 사이가 15.0%(46명)으로 나타났다.

2. 음주관련 특성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306

characteristics	division	N(number)	%	mean
sex	male	146	47.7	
	female	160	52.3	
age	20 years old	116	37.9	20.54 years old
	21-24 years old	147	48	
	25 years old and over	41	13.4	
circle	to be	139	45.4	
	without	165	53.9	
religion	to be	137	44.8	
	without	164	53.6	
state of economy	super	2	0.7	
	upper middle	18	5.9	
	middle	209	68.3	
	low	57	18.6	
	very low	19	6.2	
monthly pocket money	under 100,000 won	99	32.4	
	100,000-200,000 won	144	47.1	
	200,000-300,000 won	46	15.0	
	300,000-400,000 won	10	3.3	
	over 400,000 won	4	1.3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drinking of subjects

N=306

characteristics	division	number(%)
frequency of drinking	5-6 times/year	63(20.6)
	1 time/month	39(12.7)
	2-3times/month	80(26.1)
	1-2 times/week	83(27.1)
	3-4 times/week	24(7.8)
	every day drinking	16(5.2)
types of drinking	beer	29(10.6)
	distilled liquor	19(6.9)
	beer+distilled liquor	92(33.6)
	beer+distilled liquor+	
	A coarse kind of fermented liquor	75(27.4)
	etc.	59(21.5)

가 27.1%(83명)이었고, 한 달에 2-3회 마신다가 26.1%(80명), 한 달에 1회 정도 마신다가 12.7%(39명)로 나타났다.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와 소주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33.6%(92명)로 가장 많았고 소주, 맥주와 막걸리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27.8%(75명)로 많았다.

3. 연구 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의 서술적 통계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거절의 자기효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01점으로 중간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음주결과 기대는 이분 척도로서 평균 1.45점으로 대체로 긍정과 부정의 중간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상시 음주 빈도는 7점 만점에 4.06점으로 한 달에 2-3회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은 11점 만점에 3.40점으로 한 병에서 한병 반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평상시 음주 빈도는 7점 만점에 3.44점으로 한 달에 1회에서 2-3회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평상시 음주 빈도는 7점 만점에 1.87점으로 거의 마시지 않거나 일년에 5-6회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평상시 음주 빈도는 7점 만점에 4.36점으로 한 달에 2-3회에서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의 음주빈도가 가장 높았다. 성격은 1점 만점에서 새로운 경험추구형이 0.46점, 위해 회피형이 0.54점, 보상 의존형이 0.54점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4점 만점에 2.18점으로 중

간 정도의 우울을 나타냈다. 가족 응집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31점으로 보통 이상의 응집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문제는 5점 만점으로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이 1.67점, 행동상의 문제가 1.42점,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1.57점으로 음주문제 발생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음주 행위와 관련 변수간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음주 행위와 경제상태($r=.141, p=.018$), 용돈($r=.203, p=.001$), 어머니의 음주 빈도($r=.237, p=.000$), 친구의 음주빈도($r=.355, p=.000$), 거절의 자기 효능($r=-.189, p=.002$), 음주 결과 기대($r=.267, p=.000$), 새로운 경험 추구($r=.146, p=.017$), 위해회피($r=-.177, p=.004$), 우울($r=.167, p=.006$), 가족 응집력($r=-.123, p=.04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친구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 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가 높을수록, 위해 회피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 응집력이 낮을수록 음주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응집력과 경제 상태($r=-.172, p=.003$), 어머니의 음주 빈도($r=-.135, p=.021$), 보상 의존($r=.170, p=.004$), 우울($r=-.330, p=.000$), 음주문제($r=-.154, p=.01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음주빈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division	Mean±SD	range
refusal self efficacy		3.01± .83	1-5
alcohol expectancy		1.45± .20	1-2
frequency of drinking		4.06±1.59	1-7
amounts of drinking		3.40±2.40	1-11
father's influence		3.44±1.89	1-7
mother's influence		1.87±1.34	1-7
influence of friends		4.36±1.65	1-7
characteristics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0.46± .19	0-1
	personality of harm avoidance	0.54± .17	
	personality of reward dependence	0.54± .31	
depression		2.18± .34	1-4
family cohesion		3.31± .60	1-5
drinking problems	damage of business & social function	1.67± .74	1-5
	behavioral problems	1.42± .65	
	family & interpersonal damage	1.57± .68	

가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음주 문제가 적을수록 가족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경제 상태($r=.149, p=.012$), 용돈($r=-.152, p=.010$), 거절의 자기 효능($r=-.181, p=.003$), 음주 결과 기대($r=.243, p=.000$), 새로운 경험 추구($r=.244, p=.000$), 위해 회피($r=.406, p=.000$), 보상 의존($r=-.277, p=.000$), 가족 응집력($r=-.330, p=.000$), 음주 문제($r=.223, p=.00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용돈이 적을수록, 거절의 자기 효능이 낮을수록, 음주 결과 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수록, 위해 회피를 많이 할수록, 보상 의존이 낮을수록, 가족 응집력이 낮을수록, 음주 문제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결과 기대와 친구의 음주 빈도($r=.233, p=.000$), 거절의 자기 효능($r=-.250, p=.000$), 우울($r=.243, p=.000$), 음주 문제($r=.317, p=.00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 친구의 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 효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음주 문제가 많을수록 음주 결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의 자기 효능과 친구의 음주 빈도($r=-.211, p=.000$), 음주 결과 기대($r=-.250, p=.000$), 우울($r=-.181, p=.003$), 음주 문제($r=-.256, p=.00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 친구의 음주 빈도가 낮을수록, 음주 결과 기대가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음주 문제가 낮을수록 거절의 자기 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대상자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음주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거의 매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는 경우이었으며 다음은 음주 결과 기대, 일주일에 3-4번 음주를 하는 친구, 일주일에 1-2번 음주를 하는 친구, 일년에 5-6회 음주를 하는 아버지, 우울, 거절의 자기 효능, 위해 회피, 용돈이 10-20만원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의 변수가 음주 행위를 3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1. 청소년의 음주 관련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1-2회 마신다가 27.1%(83명) 이었고, 한달에 2-3회 마신다가 26.1%(80명)로 나타났고 평균값은 7점 만점에 4.06점으로 한 달에 2-3회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와 소주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33.6%(92명)로 가장 많았고 소주, 맥주와 막걸리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27.8%(75명)로 많았고 음주량은 11점 만점에 3.40점으로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는 5점 만점으로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이 1.67점, 행동상의 문제가 1.42점,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1.57점으로 음주문제 발생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2000), Kim(199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 문화권에서는 청소년들이 알코올을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은 가정의 제사 때 음복과 같은 예절에서부터 친구와의 수학여행, 소풍 등의 모임을 통해 접하게 된다. 대학생 때는 부모와 교사의 규제가 적어진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술을 접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2-3회 정도 소주나 맥주, 막걸리와 같은 술을 손쉽게 접하면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음주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가정적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

<Table 4> Affected factors of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variables	R	R 2	β score	t score	p value
influence of friends(drinking everyday)	.42	.17	.41	6.79	.000
alcohol expectancy	.50	.25	.20	3.45	.001
influence of friends(drinking per 3-4times/week)	.54	.29	.25	4.01	.000
influence of friends(drinking per 1-2times/week)	.56	.31	.17	2.75	.006
father's influence((drinking per 5-6times/year)	.57	.33	.15	2.56	.011
depression	.59	.35	.18	2.87	.005
refusal self-efficacy	.60	.36	-.13	-2.28	.023
personality of harm avoidance	.61	.37	-.13	-2.05	.042
monthly pocket money(100,000-200,000won)	.62	.39	-.16	-2.01	.046

만 이러한 행동을 그대로 묵인하는 경우 성인이 되어가면서 가정과 사회생활 가운데 음주의 빈도와 양이 늘어날 우려가 많고 그로 인해 음주 문제 발생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능력도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시기이므로 같은 양의 음주도 성인에 비해 그 결과 및 영향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발달과정 중이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남용·중독 상태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음주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폐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음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음주를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평생 음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 및 회복이 어렵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희박해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동의 특성은 높은 음주자 비율과 폭음, 잦은 음주빈도이다. 대학생들의 월간 음주율이 92.2%이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음주하며 남성의 경우 하루에 7잔 정도를 먹는 학생의 비율이 40.9%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나아가 청소년기의 음주행위가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음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켜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 술을 이용하는 사회적인 습관이 없어져야 하고 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자연스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의 음주 행위 영향 요인

음주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는 경우이었으며 다음은 음주 결과 기대, 일주일에 3-4번 음주를 하는 친구, 일주일에 1-2번 음주를 하는 친구, 일년에 5-6회 음주를 하는 아버지, 우울, 거절의 자기 효능, 위해 회피, 용돈이 10-20만원인 순으로 나타났다. Cho(2000)는 음주행위 구성성분인 음주강도와 음주문제 중 음주강도는 위해회피, 부모영향, 친구영향, 거절의 자기효능, 음주결과기대, 음주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친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음주문제는 새로운 경험추구, 우울, 음주결과기대와 음주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Choi, Im과 Yun (2002)의 한국대학생 음주행위 예측 모형의 성별분석결과 남학생은 경험추구성격, 자기효능이, 여학생은 경험추구성격,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Park(2000)은 음주행위의 하위변인인 음주빈도가 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행위의 하위변인인 음주량은 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태도가, 음주문제는 친구의 음주빈도, 음주친구의 수, 음주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청소년기는 부모와 친구 중에서 또래집단을 형성하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친구가 매일 음주하는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자주 음주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음주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술친구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원하지 않는 장소나 술잔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대학사회의 음주문화는 다차원적이어서 일회성의 절주 홍보, 교육 전략보다는 교육과 홍보가 적절한 수준으로 상호 보완되면서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장·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계몽함으로써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위대한 행동은 스스로 삼가고 지나친 음주문화가 아닌 건전한 문화형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고 대학생 스스로도 절주 모임을 만들고 음주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은 음주 결과 기대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클수록 음주량과 음주 문제가 커져 음주 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Choi, 1997; Wall & McKee, 1998). 우울,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과 같은 정서 인지적 요인들도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음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음주가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인식을 재정립하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음주 가능한 상황이나 음주를 권장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효능 프로그램이나 기분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의 음주 특히 음주하는 아버지를 가진 가족의 음주문화는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하는 경향을 제공하면서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잊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부모가 술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바른 자녀교육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자녀의 용돈은 계획적이고 절제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충남 K시에 다니는 대학생 중 음주자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었다.

연구도구로 음주 행위는 음주 강도와 Shin(199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Cho(2000)가 수정한 도구인 음주문제 측정하였으며, 거절의 자기 효능은 Aas 등(1995)이 개발한 자기 효능 척도로, 음주 결과 기대는 Goldman 등(1987)이 개발한 청년용 음주결과 기대점사(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Adolescent form) 척도를 Cho(2000)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성격 특성은 대학생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1991)가 제안한 3차원의 성격검사(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기초로 Shin(1998), Cho(2000)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가족 응집력은 Olson 등(1985)이 Circumplex Model을 근거로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에서 가족 응집력을 Park(2001)의 연구 도구로, 우울은 Zung(1965)의 우울 측정도구를 Shin(1977)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우선 SPSS Win 10.0 Program을 통해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으며 대상자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와 대상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의 음주빈도는 가변 수 처리하였으며 음주강도는 음주빈도와 음주량, 마시는 술의 에탄올 량을 곱한 점수를 표준화시킨 후 분석하였다. 음주강도와 음주문제를 하나의 음주행위로 설명하기 위해 SAS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음주강도 및 음주문제와 독립변수들은 정준 상관 계수를 이용,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89.5% (274명)가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평상시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1-2회 마신다가 27.1%(83명) 이었고, 한 달에 2-3회 마신다가 26.1%(80명), 한 달에 1회 정도 마신다가 12.7%(39명)로 나타났으며,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와 소주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33.6%(92명)로 가장 많았고 소주, 맥주와 막걸리를 같이 마시는 경우가 27.8%(75명)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음주행위와 관련된 변수간의 관계는 경제상태($r=.141, p=.018$), 용돈($r=.203, p=.001$), 어머니의 음주빈도($r=.237, p=.000$), 친구의 음주빈도($r=.355, p=.000$), 거절의 자기효능($r=-.189, p=.002$), 음주결과 기대($r=.267, p=.000$), 새로운 경험추구($r=.146, p=.017$), 위해회피($r=-.177, p=.004$), 우울($r=.167, p=.006$), 가족 응집력($r=-.123, p=.04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친구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 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가 높을수록, 위해 회피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 응집력이 낮을수록 음주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상자의 음주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는 경우로 음주행위를 17.3%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은 음주결과기대, 일주일에 3-4번 음주를 하는 친구, 일주일에 1-2번 음주를 하는 친구, 일년에 5-6회 음주를 하는 아버지, 우울, 거절의 자기효능, 위해 회피, 용돈이 10-20만원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의 변수가

음주행위를 3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다양한 요인과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들을 포함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2) 음주가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음주 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개발 시 본 연구에서의 영향 관련 변수를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 3) 현재 국내 대학의 음주문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건강관리기관의 간호사가 절주 내지는 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대학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as, H., Klepp, K. I., Laberg, J. C., & Aaro, L. E. (1995).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self efficacy. *J. of Study on Alcohol, 51*, 293-299.
- Bahr, S. J., Marcos, C., Morgen, S. A. (1995). Family, educational and Peer influences on the alcohol use of female and male adolescents. *J. of study on alcohol. 56*, 457-469.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Brown, S. A., & Munsion, E. (1987). Extroversion, Anxiety and perceived effects of alcohol. *J. of study on Alcohol, 48*, 272-276.
- Carey, K. B., & Correia, C. J. (1997). Drinking motives predict alcohol-related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 of study on Alcohol, 58*(1), 100-105.
- Cho, H. (2000).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i, J. A. (1997).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Alcohol of the adolescent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i, M. S., Im, M. Y., & Yun, Y. M. (2002). A predictive model comparison by sex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2*(1), 77-88.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to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Goldman, M. S., Brown, S. A., & Christiansen, B. A. (1987). *Expectancy Theory: Thinking about drinking*, In Blane H. T. and Leonard K. E. eds. *Psychological theory of drinking and alcoholism*. N. Y., Guilford Press.
- Hawkin, et. al.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use prevention, *Psychol. Bull. 112*, 64-105.
- Kim, J. W. (1998).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alcohol and Alcohol prevention program in university students*. Prevention of Alcohol problem for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 Kim, Y. H. et. al. (2001). *The elements of Psychiatric Nursing*. Seoul; Sumunsa.
- Lee Y. L. (1997). *A Study on drinking behavior of Delinquent Adolescents*.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National health survey 1998: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Korea*.
- 2001 health guide, Seoul. (2003). *National health survey 2001: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Korea*. 2003 health guide, Seoul.
- Oei, Tian P. S., & Baldwin, A. R. (1994).

Expectancy theory: A Two-process model of alcohol use and abuse. *J. of study on Alcohol*, 56, 525-534.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ark, B. J. (2001).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Adolescent's depression, and their drinking and smoking: Improving the Youth welfare*. Dongguk university of Korea, Seoul.

Park, S. Y. (2000). *Analysis on the causes of juvenile drink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hin, H. W. (1998).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Wall, H., & McKee (1998).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ttitudes toward drinking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of Study on Alcohol*, 59(4), 409-419.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s*

Ann, Jung Sun** · Kim, Hee Kyung**
Choi, Eun Sook***

Purpose: The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s to provide basic data for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health management and prohibit alcohol consumption.

Method: The subjects were 306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K city in Chungnam province from April 1 to 20th, 2002. The instruments used were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scale, that is the drinking intensity score, and developed by Shin(1998)'s scale of drinking problem, refusal self-efficacy scale by Aas et. al.(1995), alcohol expectancy by Goldman et. al.(1989), TPQ scale by Cloninger(1991), depression scale by Zung(1974), family cohesion scale by Olson et. al.(198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 SAS program.

Result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was the influence of friends(drinking everyday) (17.0%). A combination of alcohol expectancy (8.0%), influence of friends(4.0%), father's influence (2.0%), depression(2.0%), refusal self-efficacy (1.0%), personality of harm avoidance(1.0%), and monthly pocket money (2.0%) accounted for 38.6% of the variance in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Conclusion: From the results, we recommend to use the database that develop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decreasing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including the influencing factors in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Influence of friends, Alcohol expectancy, Adolescents

*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01.
Members of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Visual Image & Health, Kongju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College of Visual Image & Health, Kongju National University